

최근 5년간 입국단계에서의 발열 · 호흡기 유증상자 조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검역지원과 정경숙, 손태중, 김금찬*

*교신저자 : kimgchan@korea.kr, 043-719-9200

초 록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확산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해 검토 하고자, 최근 5년간(2015~2019년) 입국단계에서 확인된 유증상자 발생현황을 조사하였고, 이 중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 발생 현황을 월별로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 국내 입국자 중 발열, 호흡기, 설사 등 유증상자는 평균 0.3%이었다. 유증상자 중 호흡기 증상자가 6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사 증상자 23.5%, 발열 증상자 8.5% 순이었다. 2017년~2019년 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1월, 2월,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1월 이후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확산 예방을 위해 검역당국은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국자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 시기별, 지역별 예방 안내 수행 및 해외 입국자 중 확인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조사를 수행중이다.

주요 검색어 : 검역, 유증상자, 발열, 해외감염병

들어가는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병, 메르스 등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1].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약 4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에볼라바이러스병은 1976년부터 콩고 지역에서 발생하여 2018년 8월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약 3,4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2]. 해외감염병은 국외 발생뿐만 아니라 국내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된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는 2017년 531명 대비 2018년 597명으로 12.4% 증가하였다[3].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관리를 위해 「검역법」을 근거로 검역감염병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검역관리지역은 1년 동안 국외 감염병 발생동향 및 감염병별 위험도 평가를 근거로 6개월 마다 지정·해제하며, 검역감염병이 해외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특정 감염병에 대해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하는 경우와 같이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지정하고 있다[4].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검역소는 검역단계에서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나라를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과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고, 입국자에게 발열, 기침, 콧물 등 증상이 확인되면 검역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검역소는 검역조사를 통해 입국자의 증상, 최근 21일간 방문 국가, 현지 병원 방문력, 약복용력 등을 조사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를 수행중이다[5].

본 원고는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 및 확산 예방을 위한 검역체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입국단계에서 확인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 현황과 호흡기바이러스 진단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몸 말

1. 분석방법

최근 5년간 입국단계에서 확인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국한 입국자(209,761,093명)를 대상으로 입국단계에서의 증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입국자의 증상 여부는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자가 국립검역소에 제출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건강상태질문서는 인적사항 및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와 함께 발열,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등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표기하게 되어있다. 만약 입국자가 발열, 오한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약복용 여부, 현지 병원 방문 여부,

동물 접촉 여부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그림 1). 국립검역소는 입국단계에서 확인된 입국자의 검역조사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질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내 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였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 발생 현황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의 월별 발생 현황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역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호흡기, 발열, 설사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입국자 중 입국단계에서 발열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호흡기, 발열, 설사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 611,316명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증상자 발생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 467,806명을 대상으로 월별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의 발생 현황을 비교하였고,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현황을 확인하였다.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4.>

건강상태 질문서 (발췌)

성명	성별 []남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발열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발진
[] 황달	[] 의식저하	[] 점막 지속 출혈 (눈, 코, 입 등)	[] 그 밖의 증상()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관련 약 복용	[] 현지 병원 방문	[] 동물 접촉
----------------	--------------	-----------

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없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mm×210mm(황색지(80g/㎡))

그림 1. 건강상태질문서

표 1. 최근 5년간 입국자 및 유증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입국자*	209,761,093 (100.0%)	33,484,474 (100.0%)	39,523,941 (100.0%)	41,585,659 (100.0%)	46,456,631 (100.0%)	48,710,388 (100.0%)
유증상자† 합계	611,316 (0.3%)	63,424 (0.2%)	97,067 (0.3%)	154,554 (0.4%)	162,709 (0.4%)	133,544 (0.3%)
호흡기 증상자	415,906 (68.0%)	48,156 (75.9%)	73,625 (75.8%)	105,744 (68.4%)	105,338 (64.7%)	83,043 (62.2%)
발열 증상자	51,900 (8.5%)	5,938 (9.4%)	7,628 (7.9%)	9,200 (6.0%)	15,832 (9.7%)	13,284 (9.9%)
설사질환 증상자	143,510 (23.5%)	9,330 (14.7%)	15,814 (16.3%)	39,610 (25.6%)	41,539 (25.5%)	37,217 (27.9%)

* 입국자 : 항공기 이용 승무원 및 승객

† 유증상자 ; 설사질환(설사, 구토, 복통), 발열, 호흡기(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2. 연구결과

가. 최근 5년간 입국자수 및 유증상자 현황

최근 5년간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입국한 입국자는 2015년 33,484,474명에서 2019년 48,710,388명으로 연평균 9.8% 증가하였다. 최근 5년 동안 항공기를 이용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기침, 코막힘, 호흡곤란, 발열 등 유증상자는 0.3%로 확인되었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2015년에 0.2%(63,424명)로 가장 적었고, 2017년과 2018년 입국자 중 호흡기, 설사, 발열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0.4%(2017년 154,554명, 2018년 162,727명)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0.3%(133,544명)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유증상자 중 호흡기 증상자(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 등)가 6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사 증상자(구토, 복통, 설사) 23.5%, 발열 증상자 8.5% 순이었다. 호흡기 증상자는 2015년 75.9%(48,156명), 2016년 75.8%(73,625명), 2017년 68.4%(105,744명), 2018년 64.7%(105,338명), 2019년 62.2%(83,043명)이었다. 2019년 입국자 중 호흡기증상자는 2015년(75.9%) 대비 13.7%p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유증상자 중 설사증상자 비율은 2015년 14.7%(9,330명)에서

2019년 27.9%(37,217명)로 13.2%p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입국자 중 발열증상자 비율은 약 8.5%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표 1).

나. 월별 검역단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확인 현황

최근 5년간(2015~2019년) 입국자 중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입국자는 467,806명이었다. 이중 33.4%(156,435명)가 1월, 2월, 12월 입국자였으며, 23.8%(111,323명)가 8~10월 입국자였다. 2017년~2019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1월, 2월,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에는 1월 이후 감소였고 2016년에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2015년에 확인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1월 10,353명, 2월 8,507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12월 2,845명으로 감소하여 66.6% 감소하였다. 2016년의 경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8월에 10,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이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2017년 12월에 13,529명, 2018년 1월에 19,527명, 2019년 1월에 12,453명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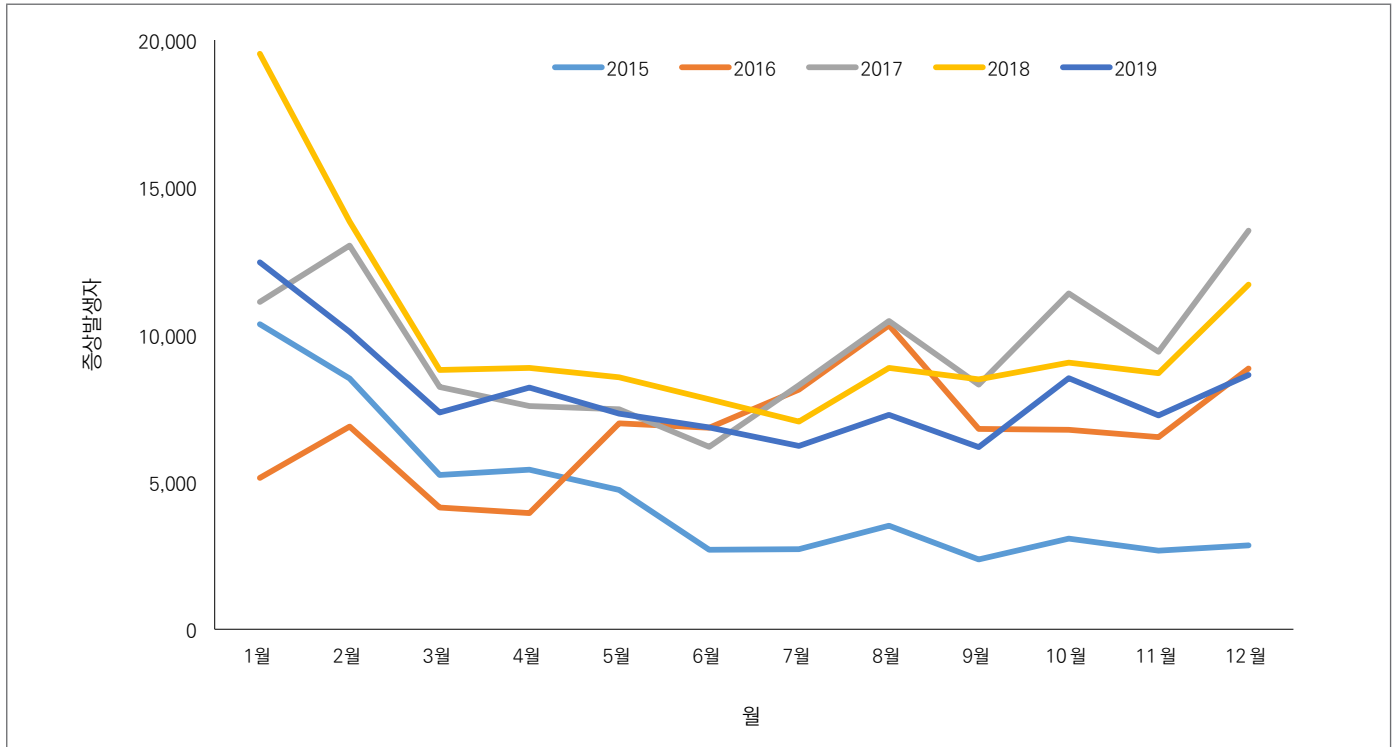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 월별 검역단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발생 현황

다. 최근 5년간 검역단계 호흡기 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현황

국립검역소는 최근 5년간 입국단계에서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입국자(415,906명) 중 579명을 대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호흡기바이러스 진단검사는 2015년 153건, 2016년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67건으로

가장 적었다. 진단검사 양성율은 2015년 13.7%에서 2019년 49.3%로 37.7%p 증가하였다.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검사 결과, 최근 5년간 진단검사 양성자(203명) 중 71.4%(145명)이 계절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28.6%(58명)이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표 2).

표 2. 최근 5년간 검역단계 호흡기 증상자 진단검사 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진단검사건수	579 (100.0%)	153 (100.0%)	155 (100.0%)	67 (100.0%)	131 (100.0%)	73 (100.0%)	
양성건수*	203 (35.1%)	21 (13.7%)	44 (28.4%)	31 (46.3%)	71 (54.2%)	36 (49.3%)	
검사 결과	계절인플루엔자(30아종)	145 (71.4%)	9 (42.9%)	34 (77.3%)	22 (70.9%)	56 (78.9%)	24 (66.7%)
	급성호흡기(7종)†	58 (28.6%)	12 (57.1%)	10 (22.7%)	9 (29.0%)	15 (21.1%)	12 (33.3%)

* 계절인플루엔자(30아종) : A/H1N1pdm09, A/H3N2, B(Victoria& Yamagata)

† 급성호흡기(7종) : 아데노, 보카, 파라인플루엔자, 라이노, 코로나, 호흡기세포융합, 메타뉴모 바이러스

맺는 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동지역에서 메르스 등 국외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6], Dengue,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된 해외유입감염병은 연평균 400명 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3]. 국립검역소에서는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유입 및 확산 예방을 위해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여, 검역단계에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발열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검역소는 입국자가 제출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발열, 기침, 콧물 등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이 확인되면 현지 병원 방문력, 동물과의 접촉력 등을 파악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한다. 국립검역소에서는 비브리오팀, 살모넬라, 세균성 이질,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검사 및 메르스, 계절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수행중이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해외를 방문한 국내 입국자 중 0.3%(611,316명)가 입국단계에서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확인되었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2015년에 0.2%(63,424명)로 가장 작았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 비율이 다른 해에 비해 2015년이 가장 작은 이유는 5월 20일 국내 첫 번째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인력과 자원을 메르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집중한 원인으로 고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정 질환 발생으로 인하여 평소의 검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검역소의 비상운영 체계 마련·운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검역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입국단계에서 확인된 유증상자(611,316명) 중 68.0%(415,906명)가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이며, 23.5%(143,510명)가 설사, 구토 등 설사질환 증상자였다. 이 결과는 해외여행자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이 대부분 발열, 급성설사, 호흡기질환이라고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7]. 따라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설사질환 감염 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안전한 식·음료 섭취에 대한 예방수칙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증상자 중 호흡기 증상자 비율은 2015년(75.9%)에 비하여 2019년(64.7%)에 11.2%p 감소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 입국자 중 호흡기증상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15년 5월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입국 시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었다. 이와 반대로 유증상자 중 설사증상자 비율은 2015년(14.7%)에 비해 2019년(27.9%)으로 13.2%p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19년 유증상자 중 설사증상자 비율이 증가한 원인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 제출해야하는 콜레라 오염지역이 2015년과 2016년에 5개국, 2017년 22개국, 2018년 14개국, 2019년 17개국으로 변화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외감염병 발생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검역관리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입국자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해외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설사증상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입국자 중 설사질환 증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검역관리지역 관리를 통한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과 함께 여행객들의 여행지별 주의해야할 감염병 및 예방수칙을 인지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해외감염병 예방에 주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었다. 국가별 주의해야할 감염병과 감염병 예방수칙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와 해외감염병NOW 홈페이지(<http://www.해외감염병now.kr/>)에 알려드리고 있으나, 더 많은 대상자들이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 수칙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이 더 필요할 것이다.

입국자 중 월별로 호흡기 및 발열 유증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1월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3월~6월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적은 추세로 나타났다(그림 2). 이러한 추세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휴가기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유증상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외여행 성수기에는 설사 질환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내용을 포함한 리플릿, 포스터 등을 이용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립검역소에서는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입국자를 대상으로 현지 병원 방문력, 동물 접촉력 등을 조사하여 메르스, A인체감염증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과 역학적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를 진행하였다. 최근 5년간 579명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검사에서는 203명(35.1%)에게 호흡기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메르스, A인체감염증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율은 2015년에 비하여 2019년에 37.7%p가 증가하였다. 호흡기바이러스 양성률이 증가한 이유는 입국단계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적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유증상자의 현지 병원 방문력, 동물 접촉력, 약 복용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는 검역조사 체계를 마련하여 진단검사를 수행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국립검역소는 현재 3개 지역거점검사센터(인천공항검역소, 부산검역소, 여수검역소)에서 바이러스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세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검사기능을 여러 검역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을 근거로 검역감염병과 검역관리지역을 관리하고, 국립검역소는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 검역조사를 수행한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해외를 방문한 국내 입국자 중 0.3%(611,316명)가 입국단계에서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확인되었고 입국단계에서 확인된 유증상자(611,316명) 중 68.0%(415,906명)가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이며, 23.5%(143,510명)가 설사, 구토 등 설사질환 증상자였다. 월별로 입국자 중 유증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2월~1월에 입국한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3월~6월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적은 추세로 나타났다.

③ 시사점은?

향후 해외유입감염병 국내 유입·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유행하는 감염병 및 국가별 발생 감염병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국자 대상으로 시기별, 지역별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강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 2020.4.17.
2. 질병관리본부,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020;5(16)
3.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연보 2018.
4. 최고은, 손태중, 김금찬. 2020년 상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 주간 건강과 질병. 2020;12(1):8-12.
5.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표준매뉴얼 2018
6. Who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93. 2020.4.22.
7. 천병철. 해외여행 관련 질환의 역학과 여행의학의 감염병 관리. 대한의사협회지. 2010;53(6):510-523.

Abstract

Investigation of fever and respiratory effected symptoms in Traveler Entering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Jung Kyung-Sook, Son Tae-Jong, Kim Gueum-Chan

Division of Quarantine Support, Center for Public 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KCDC

As infectious diseases continue to occur around the world, the public's interest and concern about the inflow and spread of overseas infectious diseases into Korea has increased. This manuscript introduced the quarantine system in Korea and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symptomatic traveler identified during the entry stage over the past five years (2015-2019), and analyzed the occurrence status of the cases of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on a monthly basis. Among the total visitors who have entered in Korea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average ratio of the suspected patients is about 0.3 percent. Among these cases, respiratory symptoms were the highest with 68%, followed by diarrhea with 23.5% and fever with 8.5%.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2017 to 2019,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occurred the most in January, February and December, but decreased since January 2015 and most frequently in August in 2016.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inflow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from overseas countries, the outbreak trend of foreign infectious diseases is continuously monitored, and continuous quarantine management is necessary to the people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by region and time of outbreak to those who leave the country so that quarantine survey can be conducted for returnees.

Keywords: Quarantine, Symptomatic, Fever, Respiratory, Imported case of infection diseases

Table 1. Travelers identified with diarrhea, fever and/or respiratory symptoms who were quarantined (2015–2019).

Symptoms*	Total	2015	2016	2017	2018	2019
		n (%)	n (%)	n (%)	n (%)	n (%)
Travelers entered Korea [†]	209,761,093 (100.0%)	33,484,474 (100.0%)	39,523,941 (100.0%)	41,585,659 (100.0%)	46,456,631 (100.0%)	48,710,388 (100.0%)
Total symptomatic	611,316 (0.3%)	63,424 (0.2%)	97,067 (0.3%)	154,554 (0.4%)	162,709 (0.4%)	133,544 (0.3%)
Respiratory	415,906 (68.0%)	48,156 (75.9%)	73,625 (75.8%)	105,744 (68.4%)	105,338 (64.7%)	83,043 (62.2%)
Fever	51,900 (8.5%)	5,938 (9.4%)	7,628 (7.9%)	9,200 (6.0%)	15,832 (9.7%)	13,284 (9.9%)
Gastrointestinal	143,510 (23.5%)	9,330 (14.7%)	15,814 (16.3%)	39,610 (25.6%)	41,539 (25.5%)	37,217 (27.9%)

* Symptoms: gastrointestinal symptoms (diarrhea, vomit, stomachache), fever, respiratory (runny nose/nasal stuffiness, sore throat, cough, dyspnea).

[†] Travelers entered Korea: crew and passenger from aircraft.

HEALTH DECLARATION FORM 健康状态调查表

(뒤쪽)

Name(姓名)	Sex(性别) <input type="checkbox"/> Male(男) <input type="checkbox"/> Female(女)
Nationality(国籍)	Date of Birth(出生日期)
Passport No.(护照号码)	Date of Arrival(到达日期)
Ship • Flight • Train • Car No.(船舶 • 航空 • 火车 • 汽车)	Seat No.(座位号码)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Please write full address(请填写详细地址)	
Mobile Phone No.手机号码(或韩国联系方式)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21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二十一天之内停留过的国家。

1)	2)	3)	4)
----	----	----	----

Please mark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you currently have or have experienced in the last 21 days.
(过去二十一天之内或现在如有以下症状,请在症状前的括号内划"√".)

<input type="checkbox"/> Fever(发烧)	<input type="checkbox"/> Chills(发冷)	<input type="checkbox"/> Headache(头痛)	<input type="checkbox"/> Sore throat(咽喉痛)	<input type="checkbox"/> Runny nose(鼻涕)
<input type="checkbox"/> Cough(咳嗽)	<input type="checkbox"/> Shortness of breath(呼吸困难)	<input type="checkbox"/> Vomiting(呕吐)	<input type="checkbox"/> Abdominal pain or Diarrhea(腹痛, 腹泻)	<input type="checkbox"/> Rash(出疹)
<input type="checkbox"/> Jaundice(黄疸)	<input type="checkbox"/> Loss of consciousness(意识模糊)	<input type="checkbox"/> Bloody mucus(粘膜出血) <small>*Eyes, nose, mouth, etc (眼睛, 鼻子, 嘴等)</small>	<input type="checkbox"/> Other symptoms(其他)	

If you marked any of the above symptoms, please mark all of the following that apply.
勾选上述“症状标记栏”时,请在下列项目的相应括号内划“√”。

<input type="checkbox"/> Any medication taken for symptoms? (服用相关症状的治疗药物)	<input type="checkbox"/> Any local hospital visits? (访问当地医院)	<input type="checkbox"/> Any contact with animals? (接触动物)
--	---	--

If none of the following symptoms apply, please mark the "No Symptoms" box.
若无相关症状,请在“无症状前”划“√”。

<input type="checkbox"/> No Symptoms (无症状)
--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时,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可被判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I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correct.
填写人确认上述健康状态调查表所填内容属实。

Date(日期) (MM/DD/YYYY)
Completed by(签字) (Signature)

Director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国立检疫所所长 敬启

148mm×210mm[황색지(80g/m²)]

Figure 1. Health declaration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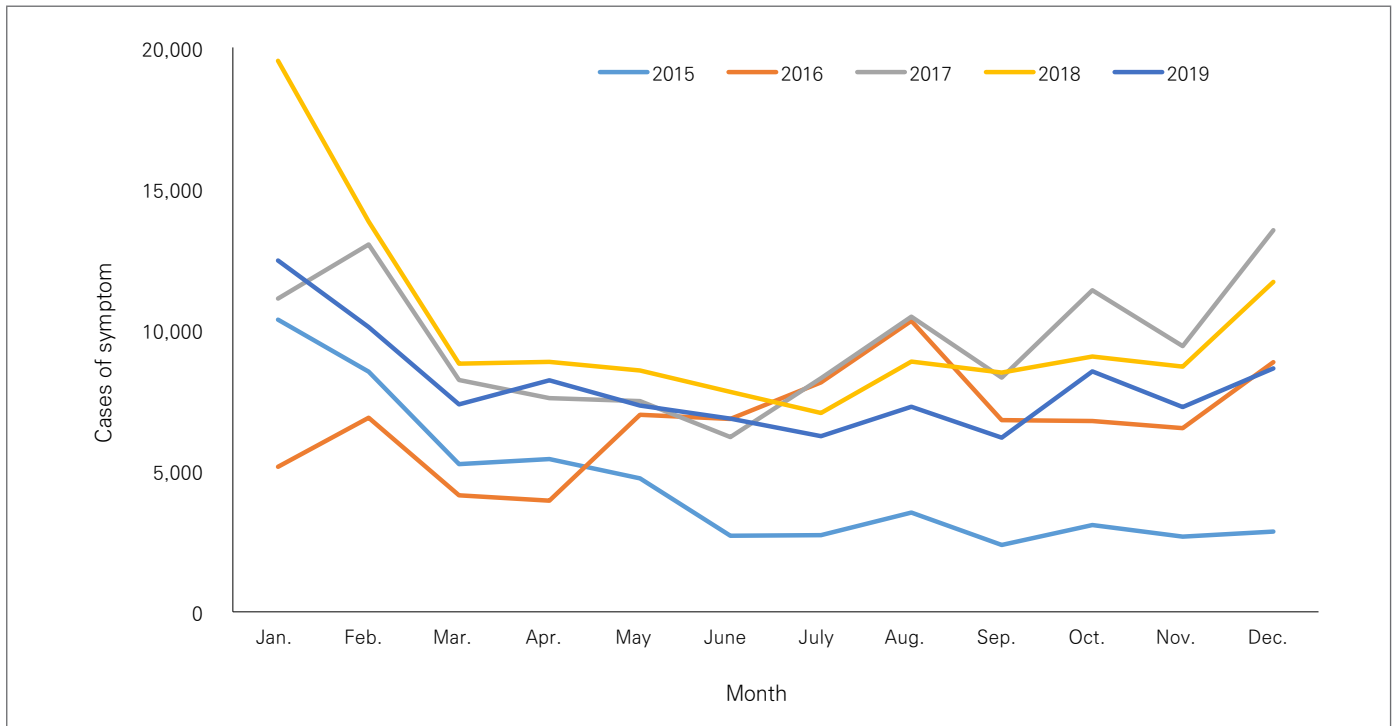


Figure 2. Status of monthly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2015–2019)

Table 2. Status of diagnostic test of respiratory symptoms who were quarantined (2015–2019)

Classification	Total	2015	2016	2017	2018	2019	
		n (%)	n (%)	n (%)	n (%)	n (%)	
Diagnostic test	579 (100.0%)	153 (100.0%)	155 (100.0%)	67 (100.0%)	131 (100.0%)	73 (100.0%)	
Positive cases	203 (35.1%)	21 (13.7%)	44 (28.4%)	31 (46.3%)	71 (54.2%)	36 (49.3%)	
Test result	Seasonal Influenza*	145 (71.4%)	9 (42.9%)	34 (77.3%)	22 (70.9%)	56 (78.9%)	24 (66.7%)
	Acute respiratory virus †	58 (28.6%)	12 (57.1%)	10 (22.7%)	9 (29.0%)	15 (21.1%)	12 (33.3%)

* Seasonal Influenza : A/H1N1pdm09, A/H3N2, B (Victoria & Yamagata)

† Acute respiratory virus : adenovirus, human bocavirus, parainfluenza virus, rhinovirus, coronaviru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human metapneumovirus